

선거비용 1만원... '클린 선거' 즐거운 경쟁

오늘 학생회장 뽑는 광주 경진중 선거 들여다보니

흑색선전·금권선거 아예 없어
응원단 6명 이내로 제한하고
선거비용엔 징계 이력도 명기
학생들이 선관위 꾸려 감시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흑색선전’, 돈으로 유권자의 표심을 사는 ‘금권선거’ 우리 학교 학생회장 선거에는 없어요.”

15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자리잡은 광주경진중에서 유세 중인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클린 선거’를 외쳤다.

학생회장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학교는 선거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학생들은 교정 곳곳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기호와 이름, 핵심 공약을 적은 포말을 들고 흔들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한창이었다.

선거에 앞서 학생들은 학생회 사무실에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고 각종 선거물을 확정했다. 학생들로 구성된 선관위를 통해 학생회장·부회장 임후보 자격요건, 선거 일정도 꼼꼼히 공지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후보자 등록에서 학생회장 후보로 3학년 학생 3명, 부회장 후보로 3학년, 2학년 각각 2명이 입후보했다.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에는 후보자 번호를 추첨했고 12일부터 15일까지 4일 동안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해 등교시간과 점심시간, 하교시간에 마음껏 유세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실은 유세 금지구역으로 설정했고 ‘음원인’(유세당도 6인 이내로 제한했다. 이를 어길 경우 1일간 선거운동 정지라는 페널티도 후보자들 동의 아래 정했다.

선거 벽보도 4절 용지(39.4×54cm)로 최



15일 광주시 북구 광주경진중학교에서 학생회장 후보자와 응원원들이 등교시간에 맞춰 후보 기호와 이름, 대표 공약 등이 적힌 포말을 들고 유세하고 있다. 지지 후보를 응원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너나 할 것 없이 맑아 보인다. <광주경진중 제공>

대 4장까지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도 본인사진, 기호, 공약, 경력, 수상 이력을 적도록 했다. 후보 검증에 위해 반드시 ‘교내 징계 이력’도 명기하도록 했다. 선관위 도장이 없는 무허가 벽보를 붙이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부착할 경우 철거 조치했다.

학생들 스스로 선관위를 꾸려 선거물을 꼼꼼하게 정하고 선거가 과열되지 않도록 별칭과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표심을 흔들 만한 참신한 공약도 쏟아져 나왔다.

회장 후보로 나선 김시은양은 “여성용품 자판기를 활성화하겠다.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학생의견 수렴도 적극적으로 해서 학교에 요구할 것을 요구하겠다. 의자, 책상, 교실 문이 낡은 것은 즉각 수

리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면서 표심을 흔들었다.

“청일점” 회장 후보인 김형진군은 “고민 해결을 위한 우체통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기호 3번 박수민 양은 “1년에 단 하루였던 학교 축제를 하루 더 늘리겠다. 적어도 1년에 축제가 열리는 2일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갖게 풀 수 있도록 하겠다. 화장실도 완전 깨끗하게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부회장 후보로 나선 학생들 가운데에는 “학교에 우산 대여소를 만들겠다. 갑자기 비 오는 날 발만 동동 구르는 학생이 경신중에서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나왔다.

학생들은 학교 측과 협의해 이날 오후 5, 6교시 교내 대강당에서 전체학생 624명

이 모인 가운데 합동소견발표회를 열고 나흘간의 열띤 선거운동을 마무리 지었다.

경진중 이복현 교사는 “지난해보다 후보자들이 2배쯤 늘어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학생들 스스로 정한 규칙을 위반한 후보는 없었다. 후보별로 선거비용 1만원선을 유지했고 참신한 공약과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삶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로 임해줬다”고 선거를 평가했다.

그는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주인-참여-민주의식을 길러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어른 후보들도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16일 7명의 후보자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씩 총 3명을 뽑는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미투 논란 가수 김홍국 “성폭행 없었다”

무고 혐의 법적 대응 예고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홍국(59)이 “성폭행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홍국은 15일 입장을 내고 “여성이 주장하는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없었고 성관계도 없었다”며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접근했다는 정황 증거들이 많다”며 여성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보험설계사였던 한 30대 여성은 MBN 인터뷰를 통해 김홍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홍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김홍국은 “2년 전 측근이었던 J모씨가 잘 아는 여성이 미대 교수인데 일로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으며 소개해 차를 한잔 했다”며 “이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료 가수 디너쇼에 게스트로 출연해 그 호텔 룸에서 뒤풀이가 마련됐는데, 그 현장에 이 여성이 또 찾아와 출연 가수, 관계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술자리가 길어져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 모두 다 가고 난 후였으며, 그 여성은 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 있어서 당황스러웠다”며 “난 소파에, 여성은 침대에 있었고 성관계는 당시 너무 술이 과해 있을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이 여성이 여러 이유를 핑계로 계속 만남을 요구했다고도 했다. /연합뉴스

‘16명 성폭력 혐의’ 이운택 내일 경찰 출석

극단 단원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연극연출가 이운택씨가 경찰에 출석해 첫 조사를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오전 10시 이씨를 종로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 고소인에 대한 조사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한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

적인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의 이씨 주거지와 그가 예술감독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 연희당거리에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이 전 감독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아내 때리고 성폭행 50대 항소심서 징역 4년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운다는 이유로 때리고 성폭행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강간과 준강제추행,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S(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7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장치 10년간 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S씨는 2016년 6월 10일 자택에서 신혼인 50대 아내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친정어머니 생각에 눈물을 흘리자 “왜

밥 먹는 분위기를 깨느냐”면서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반항이 불가능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상황에서 부부관계가 이뤄졌다면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혼인관계가 정리된 점, 적지 않은 위로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음=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응급구조사도 없이 조현병 환자 이송 구급차서 뛰어내려 뒷차에 치여 숨져

50대 조현병 환자가 구급차에서 뛰어내린 후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졌다.

15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7시20분경 무안군 청계면 편도 2차선 국도에서 박모(38)씨가 운전하던 구급차를 탄 김모(54)씨가 갑자기 뒷좌석에서 도로로 뛰어내렸다. 김씨는 뒤따라 오던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조현병을 앓고 있던 김씨는 무안의 한 재활원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던 중 이날 환청 증세를 호소해 구급차

를 타고 30여km 떨어진 무안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다.

당시 구급차에는 운전자 박씨 이외에 동승자나 간호사는 없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환자를 구급차로 이송할 때는 응급구조사나 의료진이 동승해야 하지만 해당 병원과 재활원측은 김씨를 응급환자로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과 박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jdh@kwangju.co.kr

순천교도소서 40대 재소자 투신 사망

교도소측 “가혹행위 확인 안돼”

순천지청, 관리 부실 여부 조사

순천교도소 옥상에서 40대 재소자가 투신 숨졌다.

15일 순천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재소자 A(48)씨가 교도소 건물 3층 옥상에서 세탁건조작업을 하던 중 높이 2.5m 안전펜스를 넘어 10m 아래로 뛰어내렸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당시 담당 교도관은 A씨가 옥상으로 올라

가자 뒤따라 갔지만 투신을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0년째 복역 중인 장기수로, ‘그동안 가족, 동료, 담당 주임에게 고마웠다. 담당 주임님이 불이익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측은 A씨에 대한 재소기간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은 A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교도소측의 재소자 관리 부실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kim@

성인오락실서 1만원 잃자... 화끈에 콘크리트 던지고 행패



○~40대 남성이 슬롯머신 도박에서 돈을 잃자 화끈에 인근 공사장에서 주운 콘크리트 덩어리를 성인오락실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다 경찰서행.

○~15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양모(47)씨는 지난 13일 오전 8시25분께

영양 준비를 하고 있던 광주시 북구의 한 성인오락실 출입문(40만원 상당)을 부수고 들어간 소란을 피웠다는 것.

○~양씨는 경찰에서 “전날 오락실에서 1만원을 잃어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경찰은 해당 오락실에 대해서도 불법영업 여부를 조사할 방침.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산업통상자원부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에너지관리공단 90% 융자지원사업 / 선착순 접수
농협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 명만 빌려주셔도 임대료를 선불로 드립니다 (5,000평 이상)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